

단속 걱정없이 장사...매출 줄어도 웃음꽃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옆 도로에 좌판을 편 상인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밝아보였다.

이날은 상무금요시장 노점 상인들이 20여 년간 이어져 왔던 치평동 노점시장을 청산하고 500m 떨어진 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로 이주해 시장을 연 첫날이다. 올 초부터 노점 폐쇄를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온 구청과 노점 상인 양측은 이날 하루만큼은 한마음으로 많은 손님이 찾아와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랐다.

서구청은 이날 오전 5시 시민공원 앞 도로의 차량을 통제했고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떠온 노점 상인들도 질서 정연하게 좌판을 폈다. 길이 300m, 왕복 6차선 도로 위에 노점 상인 200여명이 형형색색의 파라솔과 천막을 펴고 3줄로 기다랗게 물건을 진열하자 어느 전통시장 못지 않은 장관이 연출됐다.

갓 잡은 듯 펄떡이는 생선, 고소한 참기름과 들기름이 담긴 소주병, 공판장에서 막 떠온 온갖 과일과 채소, 인삼 등 각종 약초, 햅쌀·보리쌀·수수 등 곡물, 배추김치·파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반찬, 깔끔한 새 이불과 옷가지..

상인들이 2~3명 되는 가게에 퍼놓은 상품을 보고 냄새를 맡으며 잘 정돈된 시장 통로를 걷다 보면 이내 양동시장이나 시골 5일 장에 온 듯한 푸근한 기분마저 들었다.

부모를 따라 과일 전을 편 20대 청년이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복숭아 있어요”라고 외치며 손님을 끄는 모습, “맛 좀 보시

상무시민공원서 새 출발...상무금요시장 가보니

20년 단골들 잇단 발길...산뜻하게 정돈된 시장 보고 흐뭇

순조로운 출발 속 입지별 매출 차이·주차 문제 등 과제도



지난 23일 광주 상무시민공원 앞 왕복 6차로에 질서 정연하게 좌판을 편 상무금요시장 상인들 모습.

라”며 갓 담은 김치를 손님에게 건네는 반찬가게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노라면 구청 측 방침에 맞서 온몸으로 노점시장 폐쇄를 막아섰던 그들의 몸부림이 어느 정도 이해되기도 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 무렵엔 시장이 더 활기를 띠었다. 치평동 중흥 1·2차 아파트, 금호쌍용아파트 등 20여년간 노점 상인들의 ‘단골’들이 따가운 벌이 수그러들자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20~30대 젊은 주부는 품에 아기를 안거나 유모차를 끌고, 50~70대 주부들은 조그만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다.

주민들은 “올 1년 구청과 상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는데, 상인들도 좋고 주민에게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 잘됐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서구청도 상인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공무원 100여명을 버스노선 확보나 장을 보도록 했고 ‘각설이 공영터’와 ‘7080가요터’를 불러와

흥을 돋웠다.

장소를 옮겨 문을 연 상무금요시장은 순조로운 첫 출발을 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았다.

시장 입구에서 멀어질수록 매출 차이가 크다 보니 일부 상인들이 자리 배치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어 언젠는 상인들간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짙어보였다.

시장 끝 부분에서 직접 수확한 과일을 판매한 김영희(여·59)씨는 그러나 매출 하락에도 희망을 노래했다. 김씨는 “이전하기전 치평성당 앞에선 하루에 100만원어치도 넘게 과일을 팔았는데 이곳에선 자리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바람에 오늘 수입이 겨우 40만원”이라면서 “공무원들에게 단속당할 걱정 없고 나만의 장사 공간이 생겨 정말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차량을 끌고 시장을 찾은 주민들은 주차 공간 확충을 요청했고, 상인들의 경우 “염치 없지만 구청이 이왕 상인들을 돕기로 했으니 바, 바람, 햇빛,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시설물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놔다.

서구청 건설과 김종원 계장은 “상무금요시장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서구청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힘을 보태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경쟁력 있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만들어 상인들과 이용 주민, 구청 모두 웃을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씨가 숨진 25일, 백씨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대포 중태’ 백남기씨 317일만에 사망

책임론 공방 가열 전망...대책위 “부검 반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던 보성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숨졌다. 백씨는 317일 사경을 헤맸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1시 58분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백씨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317일째 되는 날이다.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와 부인 박경숙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백남기대책위원회는 이와관련, 25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의 부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수사당국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씨는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넘어졌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씨는 곧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보성에서 농사를 짓는 백씨는 정부에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2년에 한국가톨릭농민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다.

백씨의 사망으로 책임론이 가열될 전망이다. 백씨가 중태에 빠진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백남기 농민의 패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를 꾸리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그러나 물대포 살수와 백씨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과잉진찰”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조비오 신부 장례미사 거행

21일 선종한 ‘오월의 사제’ 조비오 신부는 생전에 농민과 빈민을 사랑했던 목자였다. 조 신부가 눈을 감기 전 유족에게 “장례 때 조화나 부의금 대신 쌀을 받았으면 한다”라는 말을 남긴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생전에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쌀만 있으면 그래도 밥은 먹을 텐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기도 했다. 쌀은 농민을 향한 조 신부의 배려이자, 어려운 이웃을 보듬으려는 사랑이었다.

‘조비오 신부 장의위원회’도 평소 고인의 유지를 살려 조화 대신 ‘쌀 조화’를 받아 농민들과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조 신부의 장례가 끝난 지난 23일까지 모인 쌀은 모두 4000여kg. 장의위원회와 광주가톨릭사회복지회는 이 쌀을 종교를 떠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장례 이후에도 조 신부의 유지를 이어 소회자매원에 ‘사랑의 쌀’을 기부하려는 뜻이 각계에서 모이고 있다. 조 신부는 1970년대 중·후반 소회자매원과 인연을 맺은 이후 마지막 순간까지 대표이사로 일하며 성인 여성 지적장애인 250여명을 돌

농민·빈민 사랑 뜻 잇는 들불동우회

해남 쌀 20% 비싸게 구입해 소회자매원에 300포대 전달기로

기념사업회 설립도 추진...이정현·추미애 대표 등 조문 잇따라

됐다.

들불동우회는 25일 “병환 후에도 조화와 부의금 대신 소회자매원을 위해 쌀은 사양치 말고 유익한 조 신부의 뜻을 잇기 위해 소회자매원에 쌀 300포(1포 20kg)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들불동우회는 오는 10월 말께 해남 산이면 농가의 햅쌀 300포대를 구입해 소회자매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해마다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걱정해 예상 수매가 보다 20% 정도 비싼 가격에 쌀을 구매할 예정이다.

들불동우회 관계자는 “저희 단체 외에도 소회자매원에 쌀을 보내겠다는 개인들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들불동우회는 70년대 말 광주지역 최초의 노동야학으로 출발해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빈민운동의 불을 지피고 5·18민주화운동을 이끈 들불야학 출신 교사와 학

생 80여명이 만든 단체다.

들불야학은 조 신부와 인연이 깊다. 들불동우회 이강(72) 상임고문 등이 1978년 조 신부를 찾아가 “농민, 노동자, 도시 빈민 스스로 교육받고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을 전달하자, 조 신부는 당시 광천동성당 주임신부였던 아일랜드 출신의 오미카엘 신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들불야학은 그해 광천동성당에 보금 자리를 만들었다.

들불동우회 최기혁(58)씨는 “조비오 신부님을 5월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민과 도시 빈민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선 분”이라며 “우리나라 자주적 농민운동의 씨앗이 된 ‘함평고구마사건’(1977~1978년)이 대표적이다. 조 신부님은 당시 농민들을 보호하며 정부의 보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들불동우회는 ‘조비오신부기념사업회’

(가칭)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회자매원에 쌀을 기부하는 10월 말께까지 각 단체와 의견을 모아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정기적으로 소회자매원에 쌀을 보내는 후원회도 결성할 계획이다. 사실상 조 신부의 유족이나 다름없는 소회자매원이 조 신부의 선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이강 상임고문은 “조비오 신부님의 삶의 궤적을 쫓아가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살필 계획”이라며 “조 신부님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선양사업을 펼치고, 그분의 뜻을 사회·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념사업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비오 신부에 대한 장례미사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주관으로 23일 광주 임동주교와 성당에서 거행됐다. 고인은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을 거쳐 담양군 천주교 공원묘원에 영면했다.

장례미사에 앞서 22일에는 대권주자에 이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조 신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역세권 뜨자 “식당 빠라”며 세입자 폭행한 ‘갑질 건물주’



○~50대 건물주가 송정역 역세권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자 구두계약으로 수익을 균분하기로 하고 들인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일삼다 경찰서행.

○~2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건물주 A(52)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에 광산구 송정전통시장 내 본인 소유 상가 건물에서 “가게를 빼고 비워달라고 했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며 떠들썩하게

주인 B(51)씨에게 욕설하고 머리로 3차례 얼굴을 들이받은 혐의.

○~A씨는 7차레나 식당에 찾아와 물건을 부수고 협박했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B씨 가게 매출대금 450만원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에서 A씨는 “7월쯤 비어 있던 20평짜리 상가를 내렸는데 역세권이 뜨자 정식 임차인을 들이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요구했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1522·3396
대표

숙박시설

감정가 38억7천만, 최저가 27억1천만
오룡동 3동 7층 / 대지 363평 건물 1200평

전원주택

감정가 5억 4천만, 최저가 3억 7천만
진도 / 대지 347평 건물 60평

오피스텔

매매가 40억
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

상가건물

매매가 14억5천만
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 ◆ **금융업소, 자동차전시장** 감정가 28억 2천만, 최저가 19억 7천만
남구 월산동 / 건물 387평 / 대남대로변 / 1,2,3층 (층별 입찰가)
- ◆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9억 6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
- ◆ **가스 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12억 7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108평 / 3기 6구 / 자동 세차기 / 화순 유입대로변
- ◆ **고급팬션 및 주택** 감정가 6억 8천만, 최저가 4억 8천만
여수 / 대지 524평 건물 106평 / 해변 전망
- ◆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5천만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 ◆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식당 성업중
- ◆ **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 매매가 16억
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 ◆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 ◆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1114 김 주 성